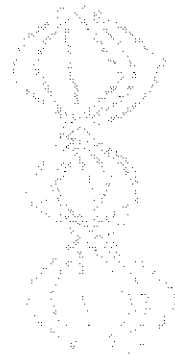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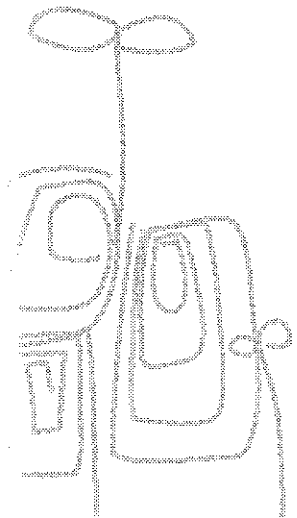
에코스타일리스트 양성을 위한
일본 연수 보고서

2005.9.9(금)~9.13(화)



주최 |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후원 | 교보문화환경재단





연수일정표

일자	지역	시간	일 정
9일(금)	인천 후쿠오카	07:00 08:10 10:00 11:50 13:00 14:30 16:00 18:00 19:30	인천공항 집합 / 출국수속 인천공항 출발 후쿠오카 공항 도착 점심식사 에코넷 사례 발표회 환경활동가와의 만남 호텔로 이동 및 휴식 저녁식사 우에노상과 실내화 만들기 (2시간)
10일(토)	후쿠오카	08:30 10:00 11:15 12:00 13:30 16:00 18:00 19:30	아침식사 EM바누 만들기 종이 만들기 점심식사 (한국요리-비빔밥 / 김치전) 나무장난감 만들기 호텔로 이동 및 휴식 저녁식사 우에노상과 실내화 만들기 (2시간)
11일(일)	후쿠오카	08:30 10:00 12:00 13:30 14:30 16:00 17:00 18:00 19:00	아침식사 직물기계 만들기 점심식사 (방글라데시 카레) 직물 짜기 (현 천을 짜서 작품 만들기) 일일 에코넷 체험활동 한·일 환경활동가 우정의 밤 (자매교류 및 저녁식사 & 어울림미당) 호텔로 이동 및 휴식 중간평가모임
12일(월)	후쿠오카	08:00 09:30 11:40 15:30 16:20 18:00 21:00	아침식사 와시로 갯벌 도시녹화박람회 및 점심식사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리사이클센터 견학 저녁식사 및 온천 호텔로 이동
13일(화)	후쿠오카 기타큐슈	07:30 08:30 09:30 11:00 12:30 13:30 16:00 17:00 18:00 20:20	아침식사 기타큐슈로 이동 자연사박물관 환경박물관 점심식사 리버워크 견학 DEPO 쇼핑물 관광 후쿠오카로 이동 후쿠오카 공항 도착 및 저녁식사 후쿠오카 출발 - 인천공항 (21:45 도착)



일본 후쿠오카 연수 참가자 명단

조	이름 (담당)		연락처	소속
가	김정지현	실무 인솔	[Redacted]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사무국
	임은경	실무 인솔		전국협의회 운영위원 / 한국Y전국연맹
	전경희	영상 담당		관악녹색가게 / 관악주민연대
나	김득주	음식 담당		파천녹색가게 / 푸른내일을여는여성모임
	박혜연	음식 담당		부천녹색가게 / 부천YMCA
	서경석	되살림교류단장		강북수유녹색가게 / 수유2동녹색가게
	최은영	물품 담당		원주녹색가게 / 원주YMCA
다	김복남	음식 담당		부산사상녹색가게 / 부산YMCA
	김선미	영상 담당		용인수지녹색가게 / 용인YMCA
	김은정	기록 담당		고양녹색가게 / 고양YMCA
	윤미숙	음식 담당		서산녹색가게 / 서산YMCA
라	문영미	음식담당		구로오류녹색가게 / 녹색문화21
	박은영	기록 담당	대전신성녹색가게 / 대전충남녹색연합	
	이희숙	음식 담당	양천녹색가게 / 양천주부환경연합회	
	장복자	물품 담당	종로녹색가게 / 서울YMCA	

★ 주요 연락처

- ▷ 예코넷 리사이클센터 ☎ 092-642-4641 (일본에서 전화할 때)
81-92-641-4641 (한국에서 전화할 때)
- ▷ 리센트호텔 092-641-7741(일본에서 전화할 때)
81-92-641-7741 (한국에서 전화할 때)
홈페이지 www.irori.net/hotel/recent/
- ▷ 임은경(한국 실무인솔자) ☎ 81-16-307-1780

에코스타일리스트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일본 프로그램 연수 개요

(1) 취지 및 필요성

환경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생활양식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70-80년대를 거쳐 환경문제가 쓰레기 문제 등 최종 배출원에서 나타난 결과적 산물로서 문제를 지적하고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환경문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생활양식과 연계되어 있는 생산, 유통, 구매, 사용, 폐기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시스템과 내용을 담고 이행할 때 생활양식의 녹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소비와 생활양식에 관한 민간단체 협약은 기본원칙으로서 새로운 가치관 정립, 변혁, 재분배, 절약, 재사용, 재활용의 6가지 기본원칙을 밝히면서 ①소비를 줄이는 일은 생산품을 재사용하고 재생하는 일을 우선시 한다 ②상품을 절약한 뒤에는 상품의 재사용이 재활용 생산에 우선한다고 말하고 있다.

90년대 초반 녹색가계운동이 생기게 된 발단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한 자원재활용 시민실천운동 분야에서였다. 물건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방식의 '알뜰장'을 개최하거나, 종이나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가지고 오면 휴지나 비누로 바꿔주는 자원재활용캠페인, 그리고 재활용 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이 분야는 자원순환형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실천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이 점에서 환경교육이 도시생활에서 자연생태계를 통한 교육 외에 도시사회에서의 소비문제를 환경친화적인 소비로 전환하기 위한 역할로서 녹색소비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자라나

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부터 청소년, 주부 등 어른까지 한 사람의 일생에 걸쳐 환경교육이 평생 교육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상에서의 녹색소비교육으로서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유기적 연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학교에서의 환경교육과 지역사회의 환경교육이 접목되고 개발된 사례가 많지 않다.

현재 녹색소비교육으로서 지역의 환경센터 역할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환경교육센터로서의 공간적 이미지가 몇 군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소비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주체와 네트워크, 지도력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녹색소비교육센터가 필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탐방하고자 하는 일본의 후쿠오카 지역은 지역의 환경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인 후쿠오카시에서 환경센터로서의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녹색소비실천 활동을 스스로 구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마을단위의 연계성 속에서 음식물 퇴비화 시설, 환경친화적인 수퍼마켓, 재사용품의 새로운 상품으로의 탄생 등 다양한 면면을 볼 수가 있다. 특히 이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들이 여성지도력인 만큼 녹색가게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자원활동가들이 직접 배우고 교류하며, 적극적인 자원순환형 네트워크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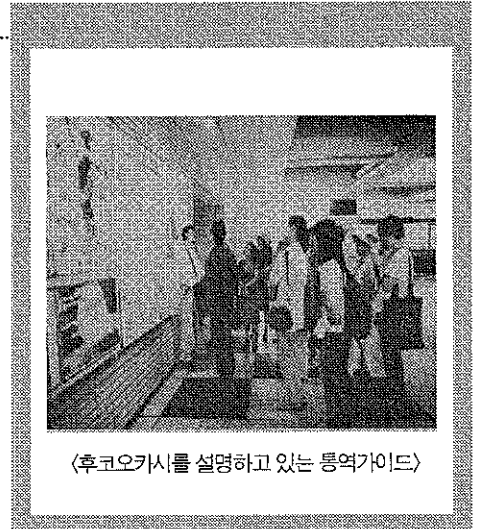
이에 지역사회의 자원재사용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온 지역사회 녹색가게 여성자원활동가들이 직접 일본 후쿠오카의 환경센터를 방문하고, 센터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각종 활동, 그리고 지역의 마을단위와의 환경친화적인 노력들은 무엇인지 등을 직접 살펴보고자 일본 교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

또한, 그간 한국사회의 재사용·재활용 생활문화가 일본교류를 통해 한국사회에서는 지역의 녹색소비교육센터를 마련하여 접목할 수 있다. 이번 과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배우고, 한국의 생활방식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을 도모하고 함께 교류하고자 한다.

자료 | 후쿠오카시

이 글은 2004년 녹색가게 일본 환경단체 교류 프로그램 방문보고 내용을 재 게재한 것이다.

후쿠오카 인구는 140만으로 큐슈의 최대도시이다. 일본에서 제일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반도와 교류가 많았으며, 오사카를 가는 거리와 서울을 가는 거리가 비슷하다. 현재 부산시와 교류를 통해 서로 1명씩 교환 근무하고 있다. 팸플릿도 한글판을 만들고 있다.



〈후쿠오카시를 설명하고 있는 통역가이드〉

후쿠오카 환경행정은 환경국이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기본계획을 세워 활동하고 있다. 활동은 크게 5가지로서,

첫째, 도시환경의 보전과 창조

둘째, 사람과 자연의 공생

셋째, 순환형 사회의 구축

넷째, 국제적 협조

마지막으로 환경인식의 공유이다.

도시환경의 보전과 창조는 대기, 하천, 바다의 보전을 목표로 후쿠오카시의 산과 바다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하카다만의 부영양화로 인한 적조발생과 도시 중심부의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이라는 2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다.

청정바다를 위해 하수처리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NO MY CAR DAY를 매월 14일로 정해서 차 없는 날을 캠페인하고 있다.

둘째, 사람과 자연의 공생은 수목과 수변 자연환경의 보전이다. '옛날 나무를 지키자'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임업과 삼림업이 산업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며, 행정이 관리하기는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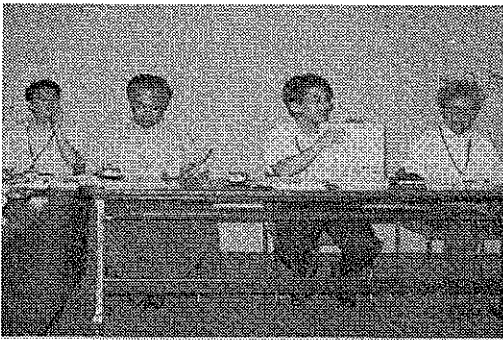
려워 NPO(비영리법인단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셋째, 자원을 아끼고 에너지를 절약하자라는 것이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해서 자원을 절약 하자는 의미로, 후쿠오카 시내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는 4가지 항목별로 분류한다.

불연성, 가연성, 빈병·플라스틱, 대형폐기물로 나뉜다. 불연성은 수거한 후 자원화센터에서 재 분류하여 회수하여 자원으로 다시 사용하고 있다. 가연성은 소각장으로, 불연성은 매립장으로 가며 매립장에는 유기물은 들어갈 수 없다. 병과 페트병은 분리하지 않고 같이 회수한다. 같이 수거해야 깨지지 않고 페트병은 날아가지 않는다. 분리장에서는 유리는 갈색, 무색, 기타로 나 뉘지고, 페트병으로 분류한다.

시민이 버릴 때는 4가지로 분류하나 나중에 자원회수센터에서 2번을 재분류하므로 결국 6번 을 분류한다. 종이의 경우 양이 많아 별도로 분류한다. 가전제품 중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냉동고는 수수료를 내고 회수한다. 올 7월부터는 컴퓨터도 회수에 들어갔다.

넷째로는 국제적인 협력으로 온난화 등 지구 규모의 대책을 짜는 것이다. 불연성 쓰레기의 매 립기술은 후쿠오카 방식이 있는데,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 파나마 등으로 기술이 나가고 있다. 지금 이 방식을 여러 나라로 보내려고 하고 있다. 매립을 하면 산소가 없어지고 메탄가스가 발생한다. 메탄가스는 탄산보다 수십 배로 지구온난화를 촉진한다.



〈설명하고 있는 와타나베씨〉

마지막으로 환경인식의 공유이다. 환경개발과에 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으로 현실화 실현화를 위 한 항목이다. 환경교육을 하는 곳으로 교육학습이 라고 하면 가르치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 다. 우리가 말하는 환경교육·환경학습은 이해,

기술교육, 문제에 항의하기 위한 행동까지를 환경교육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자연에 시민들 과 함께 가서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환경강좌도 개최하며 직접적인 행 동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NPO도 지원한다.

앞으로 방향성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다. 현재는 초등학교, 중학생만 하고 있는데 유치원생으 로 넓힐 생각이고, 교사들에게도 연수를 할 생각이다.

또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5년에는 환경시민기금을 조성하고자 한다. NPO지원은 환경 정보교환 및 공유로 온라인 상에서 하고 있다. NPO 각각이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지원하고 있다.

질문

1. 한국에서는 자기 집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다른 집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다. 후쿠오카시는 어떤지?

시민들이 그럴 경우 시민패트rollers를 만들어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해결하게 한다. 업체가 그럴 경우 날마다 지역을 돌면서 패트rollers 활동을 한다.

심한 경우 범칙금이 있는데 우선 계속 치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축적되기 때문이다.

2. 밤엔 카메라도 설치하는지?

업체가 카메라를 설치한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하고, 시민들이 지원을 요청하면 도와 준다. 결국 해결될 수는 없다. 그래서 계속 어린이부터 교육이 필요하다.

3. 양천구의 경우, 분리수거하는 날을 정해서 하니까 잘 안되어 문전수거 방식으로 업체들이 수거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분리수거의 경우 쓰레기 성상물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가연성과 불연성이 있었는데 가지 수를 늘이면 매우 힘들어 4가지만 하고 있고 그리 큰 문제가 없다.

4. NPO에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지와 녹색가게와 같은 유형이 후쿠오카에 있는지?

NPO지원센터가 시에 있어 환경단체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 지원이 가능하며, 조직운영의 노하우 강좌, 정보교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유아대상교육의 경우 NPO와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비는 시에서 지원한다.

후쿠오카시는 리사이클링센터를 운영하며, 이곳에서 재활용교실, 우유팩으로 종이를 만든 다거나 등등의 환경교육이 병행되고 있다.

후쿠오카 행정기관과 NPO의 활동

일시 : 9월 9일 오후 1시 ~ 2시 30분

장소 : 후쿠오카 리사이클센터

설명자 : 와타나베 마사히코(후쿠오카시청 환경과)

시나 행정기관에서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행정기관에서 일을 할 때는 공평성과 공정성 2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먼저 공평성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나 행정기관의 경우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는 힘이 들며, 공정성의 경우 시민들을 이해시키는 부분 - 즉, 시민들을 뽑아 의회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고려할 부분이 많다는 점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진행할 경우의 한계점이다.

다른 한쪽에는 NPO와 시민단체가 있다. 이런 단체에서 일할 때는 공평성보다는 회원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고, 생각하는 걸 바로 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지금 일본은 NPO와 시민단체 그리고 행정기관이 연합해서 일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장점을 살리면서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목적은 같으나 할 수 있는 능력이 틀리기 때문이다. 행정기관도 NPO와 시민단체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나, NPO와 시민단체의 단점도 있다. 단점은 활동할 장소와 정보(누구와 같이 협력할 것인지 단체간 교류), 노하우,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고 후쿠오카 시에서도 장소, 정보, 노하우를 지원하고 가르치기 위해 연수 등의 도움을 준다. 그리고 NPO와 시민단체도 교육, 환경, 복지 분야 활동에서 행정기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후쿠오카시 환경과에서 도움을 주는 4가지 활동을 소개하면,

첫째, 자연관찰회 활동이다. 이것은 NPO가 주최해(숲 해설가) 시민들을 초청하여 환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숲과 해변을 관찰하는 활동이다.

둘째, NPO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아이들을 모아 환경교육을 하는 것으로 지구 안에 있는 동물, 식물 등 자연에 대하여 교육한다. 교육에 사용되는 카드는 NPO와 시에서 함께 제작한 것이다.

셋째, 러브하우스 활동이다. 이것은 쓰레기줍기 등 마을을 보호하는 활동으로 NPO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넷째, 환경페스티벌이다. 시청앞 광장을 이용해 약 10개 단체와 함께 재활용 박람회를 개최해 직접 만들어 보는 등 체험활동을 해 보는 것으로 후쿠오카 에코넷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행사이다.



질문

1) NPO와 시민단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 특별한 차이점은 없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로 법인인지 여부의 차이이다.

2) 러브하우스 사업 내용은 무엇인가?

→ 집을 고쳐주고 새로 지어주는 활동이 아니라 후쿠오카시 주변 60개 지구를 만들어 함께 해변 등을 청소하는 활동으로 부산시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3) 환경페스티벌의 내용은 무엇인가?

→ 참여하는 10개 단체에서 각 부스를 만들어 진행하기 때문에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폐품을 이용해 악기나 장식품을 만드는 활동을 체험한다.

4) 한국에서 해양모니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혹시 러브하우스 행사를 위한 이벤트 행사가 있는가 ?

→ 행사장을 설치해 쓰레기를 줍는 것 이외에는 이벤트가 없다.

5) 러브하우스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집하나?

→ 기업에서 많이 후원하고 직원들이 참여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 신청을 한다.

6) 환경페스티벌은 정기적으로 하는가?

→ 매년 10월에 1번, 2일간 진행한다.

7) 이러한 활동이 후쿠오카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환경활동은 소수만 해서는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활동을 널리 알리고 환경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환경의식의 성장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래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8) 이런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요구인가, 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인가?

→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지만 대부분은 시의 필요로 하고 있다.

9) 파트너십을 맺을 때 적절한 상대를 찾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

→ 단체끼리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10) 한국의 경우 시민단체와 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관계가 많은데 후쿠오카시는 어떤가?

→ 일본도 10~20년 전에는 신뢰감이 없는 긴장감으로 형성된 관계였다. 행정기관에서 시민단체를 볼 때는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집단으로 보였고, 시민단체에서 행정기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되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시민단체끼리의 연합과 시민단체와 행정기관이 통합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

11) 환경과에서 집행하는 전체 예산중에서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의 비중은 어떻게 되나?

→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많이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시민단체에 할 것인지 물어보고 지원하고 있다.

12) 공무원의 순환근무로 단체와의 협력 등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 순환근무는 환경과의 경우 2년에 한번 씩 있다. 그리고 시의 경우는 4년마다 바뀐다. 그러나 업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13) 후쿠오카시에서 리사이클 센터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 행정기관에서만 재활용운동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행정기관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시민단체도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에코넷 사례 발표Ⅱ - 에코넷 후쿠오카

에코넷 후쿠오카 홈페이지는 www.econet-fukuoka.com이다.

일시 : 9월 9일 오후 2시 ~ 3시

장소 : 후쿠오카 리사이클센터

설명자 : 고이데 마즈루(사무국장)

환경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린다. 쓰레기를 줄이며 재활용하는 운동을 에코넷 후쿠오카도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5년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에코넷 후쿠오카 안에 4개의 부서가 있었으나 3년 전부터 6개로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다. 각 부의 활동은 담당부장이 설명을 하고 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하겠다.

사무국의 활동을 보면, 독특한 활동 중 1개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림을 그리는 교육에 사용하는 종이는 사용한 도화지와 달력을 이용한다.

또 한 가지는 쓰레기를 줄이는 학습을 하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달에 2회 정도 평일과 주말에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슈퍼마켓에서 나오는 전단지 등을 줄이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활동을 위해 슈퍼마켓 주인의 양해를 구해 1년간 쓰레기 양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도 1년 동안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행정기관, 기업, 소비자 3자가 모여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올해는 상품연구를 하고 있다. 하나는 종이묶음 전단지 줄이기, 휴지의 표시, 흡수 정도와 걸포장지에 있는 내용 확인 및 가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런 실험 조사를 많이 해 슈퍼마켓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홍보회(부장, 야마시타씨)

부원은 11명이고 부원 중 여성이 8명, 남자가 3명이다. 보통 업무(활동)는 6명 정도가 모여서 하고 있다. 이유는 11명 중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어 상주할 수 있는 부원이 6명 정도이기 때문이다. 월별 활동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① 시민에게 정보제공

방법은 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이다. 소식지의 제목은 エコライフりんかい이다. 매월 10일에 한 번 발행한다. A4사이즈 4쪽 흑백으로 3,500부 발행한다.

② 회원대상 에코넷통신 제작

매월 25일 발행하며, 사이즈는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소식지와 동일하다.

③ 홈페이지로 정보제공

내용에 대해서는 리사이클플라자에서 진행되는 체험활동에 대해 제공하고 있다. 활동정보와 사진도 첨부해서 홍보하고 있다.

④ 도서관 운영

시민들에게 책을 대여하고 있으며, 도서들은 환경에 관련된 책이 대부분이다. 수량은 약 300부정도가 있다.

⑤ 플라자에서 하는 큰 이벤트 등을 보도기관에 홍보한다.



이벤트부(부장, 나카자키 요코씨)

이벤트 기획일을 하고 있다. 리사이클플라자에서는 2번 큰 행사가 있다. 후쿠오카 에코넷이 문을 연 다음 9번의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진행은 개관한 3월과 여름방학인 8월에 하고 있다.

벼룩시장은 연 6회 진행한다. 가장 더운 여름과 가장 추운 겨울에는 하지 않는다. 환경행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저스코(주)라는 슈퍼마켓에서도 1회 벼룩시장을 하고 있으며, 하카다 리버레인에서 행사 출전을 위해 교육을 받았다.

또한 실내화 만들기 행사와 2, 3층 갤러리를 담당하고 있다. 재활용과 자연환경에 관한 것을 전시하고 있으며 갤러리는 2달에 1번 교체 하고 있다. 현재 2층에는 인형을 전시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판매부(부장, 오오시마 키요미씨)

시민들이 가져온 의류, 잡화를 판매하고 있으며 10명의 자원봉사자가 담당하고 있다. 8월에는 216명이 가져왔으며 하루 평균 9명이 가져오고 있다. 기증된 내용은 의류 2,620점, 잡화 2,437점, 책 750점으로 합계 5,807점이다. 구입한 사람은 의류와 잡화는 1,243명, 책은 193명으로 총 1,436명이다. 팔린 양은 의류와 잡화가 5,519점, 책이 703점으로 합계가 6,222점이다. 수익금은 의류 잡화에서 333,645₩, 책이 28,860₩으로 총 362,505₩이다. 그리고 매월 3째주 토요일에는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

가지고 오는 물건 값은 시장가보다 싸게 책정하며 대부분 주부의 감각으로 책정한다.



리사이클교실(부장, 우에노씨)

리사이클교실은 판매부에서 팔리지 않아서 쓸 수 없는 물건을 모아서 판매하거나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무료체험코너를 운영하여 방문자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매월 6개 종류의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さきおり(옷을 찢어 만드는 것), 에코쿠킹, 광고지로 바구니 만들기, 쓰레기통·꽃바구니·우산으로 작품을 만드는 강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좌이다.



콘포스트(부장, 모리야미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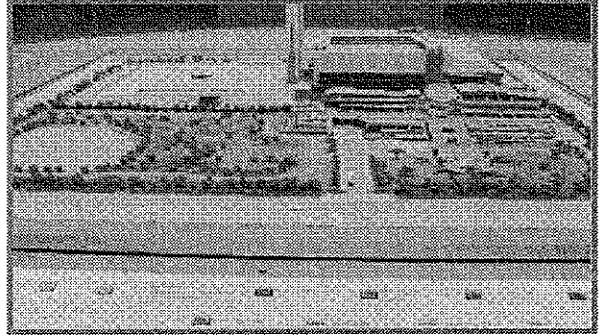
하는 일은 부의 음식물 쓰레기를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자신의 집에서 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며, 이를 사용하여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 내일 직접 재배한 감자, 양파 등을 볼 수 있다.



수리공방부(마즈루 사무국장)

시민들이 가지고 오는 작은 가구, 못쓰게 된 것 등을 수리하여 다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그 외에 목재로 쓸 수 없는 것을 모아 이벤트 때 작은 의자 등 소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의류, 책 등을 판매한 수익금은 수리공방부를 유지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가구 제조 수리는 소비자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기도 한다. 망가진 제품을 가지고 오면 색칠과 수리를 해주고 있다.

자료 | 에코넷 후쿠오카



(프라자 모형도)

1. 설립취지 및 활동 목적 : 「시민·행정·기업을 연결하는 21세기형 파트너십」

쓰레기 감량·재활용에 관해서 후쿠오카시민과 서로 이야기하고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해 나가
기 위한 기회를 창출하며 행정·기업과 협동해 자원·에너지의 순환을 생각하는 도시「후쿠오
카」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운영형태 : 「특정비영리활동 법인」

후쿠오카시 환경국에서 위탁을 받아 크린파크·임해 리사이클 플라자 (주소:후쿠오카시 히가
시구 하코자키후토4-35)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탁금: 2,100만엔(2억1천만원)

3. 특정비영리 활동내용

- 1) 환경보전활동
- 2) 사회교육 추진활동
- 3) 마을만들기 추진활동
- 4) 문화, 예술, 스포츠의 진흥활동
- 5)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운영 활동에 관한 정보공유, 조언, 원조 활동

4. 설립

- 1) 2000년 12월 3일 임의 단체 「에코넷 후쿠오카」설립
- 2) 2001년 3월 6일 특정비영리활동 법인 「에코넷 후쿠오카」로서 인증 받음
- 3) 2001년 3월 22일 설립등기

5. 임원 (총14명)

이 사 장: 아베 신야(후쿠오카대학 교수)

부이사장: 하라다 미도리(후쿠오카시 히가시구 여성협의회 회장)

상무이사: 코이데 마주루(에코넷 후쿠오카 사무국장)

이 사: 시로토 토시오(후쿠오카시 초등학교장 부회장),

하야시 켄지(큐슈 자스코 주식회사 사장) 외 7명

감 사: 고라이 마유미(후쿠오카시 환경국 관리부 가정쓰레기 감량대책 과장) 외 1명

6. 회원수 (2004년 5월 현재)

1) 정회원 - 개인대상, 연회비 천엔(만원): 168명

2) 찬조회원 - 개인·단체·기업 대상, 연회비 만엔(10만원): 7개 기업체

7. 회원활동 목표

1) 함께 모이고 서로 알고 퍼뜨려 나간다!

2) 쓰레기에 대해 생각한다!

3) 재활용 생활문화를 구축한다!

4) 차세대에게 자원을 남긴다!

8. 주요 회원활동

1) 재활용에 대한 기술습득: 강연회, 연수, 강좌 참여, 강사로서도 참여할 수도 있음

2) 리사이클 플라자에서의 봉사활동 (매회 교통비 1,000엔 지급)

3) 리사이클 플라자의 기획과 운영(한달 2회, 6부회의 부회장 회의)

9. 이사결정의 흐름

부회장 회의(도시환경 후쿠오카시 환경국 참가) → 이사회(기획·운영 결정) → 총회(인사 결정, 1년에 한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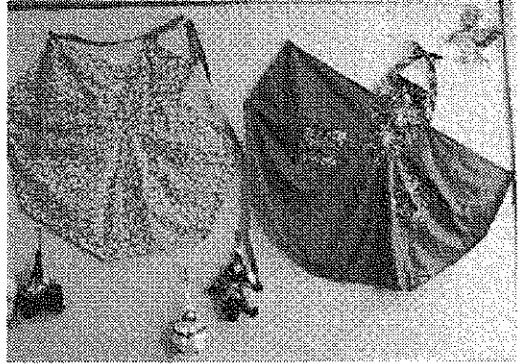
10. 사무국 운영

사무, 경리, 견학자 대응, 다른 단체들과의 교류·제휴·지원, 부회 조정, 회원모집과 담당부회 배치, 강사 파견, 가구수리와 추첨판매

11. 소모임 운영 (총6개 소모임)

1) 이벤트부

- 벼룩시장을 1년에 6번, 행사를 1년에 2번 개최.
- 다른 단체사업에 작품출전 등
- 환경상품 전시, 친환경기업에 전시용 공간 제공



2) 정보홍보부

소식지 · 회보 발행, 홈페이지, 메일 매거진 발송, 기타 정보제공, 설문지 조사, 서적 비디오 구입 · 대출

3) 재활용 교실부

- 헌 천을 찢고 짜서 작품 만들기 (조리 등 직물을 짤 댐 기계사용)
- 종이 뜨기
- 광고지로 바구니 만들기
- 우산을 풀어 작품 만들기
- 리폼
- 폐식용유로 비누 만들기
- 에코 쿠키
- 판매용 재활용상품 제작
- 강사 파견

4) 리사이클폼 판매부

리사이클 플라자 점포에서의 판매 : 의류, 잡화, 헌책 등의 접수 · 관리 및 판매

5) 퇴비 110번부

- 강사파견
- 퇴비 만들기 상담회 실시(밭에서 실천)
- 관내 전시물 설명(퇴비 카운셀링)

6) 수리공방부

- 강사 파견
- 가구 수리 · 청소 및 제공
- 일반시민에게 가구수리 방법을 가르침
- 비품 만들기
- 장난감 병원(장난감 의사)
- 장난감 워크숍
- 판매용 작품 제작
- 목공 교실

12. 회원연수

2001. 카나가와현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에서 연수참가 (2박3일, 6명)
2002. 카나가와현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에서 연수참가 (2박3일, 5명)
2002. 전국소비자포럼에서 발표 「상품을 사는 법, 사용하는 법, 버리는 법」(1명)
2003. 카나가와현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에서 연수참가 (2박3일, 4명) 전국 소비자 포럼에서 발표 (4명)
- ① 「폐 식용유로 만든 재활용 비누-EM 발효 쌀뜨물로 만든 비누와 물로 만든 비누의 차이」
 - ② 「환경체험 학습 에코 어린이 회의」
2004. 전국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연구집회 2004 참가 (13명)
- 전국소비자포럼에서 발표 「헌 우산을 다시 살리자!」(2명)
- 카나가와현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에서 연수참가

※기타 연수

- 재활용 관계 시설이나 다양한 체험강좌를 할 수 있는 시설 견학 및 체험(모든 회원 대상)
 - 후쿠오카현 내에 있는 유명한 가구산지의 생산과정을 견학(수리공방 부회)
 - 자연농업 체험강좌(풀을 아끼는 농업) 참가
 - '농' 체험강좌(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농협과 후쿠오카시 농수국 공동개최 강좌) 참가
 - 3F 기획이벤트 코너에서 기업의 재활용 상황에 대해 강연 개최 및 청강.
- 녹색소비운동가를 매월 초대해 「에코넷 후쿠오카 공부모임」을 개최. 운동가와 함께 슈퍼의 트레이 모니터를 하고 슈퍼·행정·소비자 3자 토론회를 목표로 공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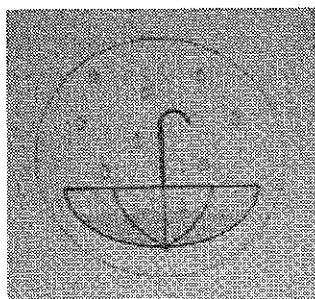
빗물의 활용과 우리들의 생활

- 홍수와 건수를 지역에서 예방함, 물 순환의 회복

일시 : 9월 9일(금) 오후 2시 30분

장소 : 후쿠오카 리사이클센터

설명자 : 야마시타 테루카루(작은 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한국에서도 강에서 물을 받거나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 후쿠오카는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걸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문제의 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활동을 보면, 우리는 '빗물을 다 같이 모읍시다' 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단체의 마크인 우산을 거꾸로 세워 빗물을 담고 있는 모양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빗물이 필요없다' 라는 생각을 바꿔 '비가 올 때 우산을 뒤집으면 물을 모을 수 있다' 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빗물을 모아 활용하는 문제는 후쿠오카 지역의 문제이자 자연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의 순환과 관계가 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강은 계속 흐를까? 이것은 비가 지하, 나무, 공기 중에 스며들어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의 순환으로 바다에서 증발한 물이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내리는 순환과정이다.

이 활동은 후쿠오카에서 하는 활동이지만 세계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좀 더 큰 규모로 보면 지구라는 지역을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생명이 태어나서 바다물이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 즉, 물이 생명이 되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460억년전 지구가 생겼을 때 물은 기체였으며, 그 때부터 지구의 물의 양은 동일하다. 그리고 지구에는 두 가지의 기적이 있었다. 첫 번째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적당했다는 것이다. 만약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웠다면 뜨거워서 물이 없었을 것이며, 두 번째는 지구의 크기가 적당했다는 것이다. 크기가 작았다면 인력이 작아 물이 날아 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다. 비가오면 뜨거운 지구에 구름이 형성되고 구름에서 비가 오

고 그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처음에 내린 비가 많아 물의 양이 형성되었고 지구는 약간 기울어져 차가운 부분과 뜨거운 부분이 있어 물이 순환하게 되었으며, 이런 물의 순환을 통해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해 준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비극적인 일도 있다. 그것은 사막화이다. 이것은 약 오천년 전의 사건으로 인류시대 즉 문명이 발생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문명은 숲과 자연을 파괴했고 이것이 사막화의 원인이 된 것이다. 사막이라는 것은 물이 많이 증발된 상태로 즉,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것으로 이 정도로 물이 부족한 지역은 없을 것이다.

지금의 현상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자. 세계 인구의 1/5 12억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물이 없는 상태이다. 물이 없는 상태라는 건 안전한 물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 세계 사람 중 8초마다 1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물이 부족해 죽고 있다. 더욱 슬픈 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중 대부분이 5살 이하의 어린이라는 것이다.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벌써 200명이 죽었다.

지구는 물이 있는 행성이지만 물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사용 가능한 물이 없다는 것이다. 지구의 물을 분석해보면 96.5%는 바닷물이며, 1.7%는 지하수, 1.7%는 빙하이다. 지하수라고 해도 지하 및 맨틀(Mantle, 지각과 중심핵의 중간부)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것은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0.037%만이 강, 우물, 폭포물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이다.

특히 일본은 물이 적다. 일본인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적다. 이것은 일본의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수도를 틀어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동 1그릇을 만드는데 물은 9이 든다. 물론 직접 요리하는데 드는 물의 양이 9이라는 것이 아니다. 물의 간접 소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쌀을 다른 나라에서 만들면 그 나라의 물을 사용하게 된다. 일본은 식량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므로 수입하는 것을 물로 환산하면 우동 1그릇을 만드는데 드는 물의 양이 9이 된다는 것이다. 소고기는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일본의 총 수입 물량은 1,035억t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보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의 양이 더 많다. 1인당 사용하는 물의 양은 약 890억t이다. 이런 점에서 앞에서 말한 안전한 물이 없다는 것 등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지금 후쿠오카는 홍수와 건수 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착각하는 문제가 있다.

어떤 일에도든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럼 건수의 원인은 댐인가?, 홍수의 원인은 강인가? 적어도 후쿠오카의 물의 문제 원인은 이 2가지가 아니다. 방송에서는 물이 없으면 댐에 물이 없다고 한다. 즉, 댐 때문에 물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댐과 강의 원인으로 돌리고 있으나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댐에 물이 없는 것, 강에 넘칠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건 결과적으로 물의 순환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즉, 물의 순환 중 토지 이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밭, 논이었던 땅이 도시화가 되면서 콘크리트화가 되었다. 비가 오면 물의 받은 강, 밭, 논 등지로 흡수가 되었지만 지금은 100%가 강으로 흡수되고 있다. 그리고 인구의 증가이다. 마지막으로 생활 스타일의 변화이다. 이것은 마시는 물의 양도 많아져 계속적으로 물을 끌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가 오면 지하에 스며드는 양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가 줄어들고 지하수가 강으로 가는 양도 줄어들고 있다. 옛날처럼 강의 물로 생물이 살 수 없다. 이걸 후쿠오카의 변화이다. 즉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에 내린 비는 바로 강으로 가기 때문에 물이 넘칠 위험이 높아진 것이다. 후쿠오카도 강물이 흐르지만 강의 폭은 누가 정하는가? 이걸 사람이나 행정기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이 정하는 것이다. 도시가 발달되면서 강만으로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물의 순환이 바뀐 이유는 도시화가 되어서 빗물이 강으로 직접 유입되고, 주택가에 사는 사람이 늘어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택가에 오는 비를 모아 강에 보내지 않고 직접 쓸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빗물을 모아 사용하면 건수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택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 빗물을 모아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행동은 어렵지 않다. 집에 비가 오면 비가 떨어지는 곳에 물이 모이도록 하고 나머지는 지하에 스며들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타나다화계획'을 생각했다. 이것은 산에 짚을 재배했던 것에서 착안해 주택가에 풀이 자라면 지하로 물이 스며들어가고 물의 순환이 복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물을 모으자고 해도 비용문제가 있었다. 빗물을 모으는 탱크의 가격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서 식품을 수입할 때 사용하는 탱크를 무료로 구입해 보급하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이었다.

모은 물을 화장실에서도 사용했으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목욕이나 빨래를 하고 남은 물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캠페인도 했다.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즐겁다. 초등학교에 약5cm의 빗물이 내리면 약 100t정도의 물을 얻을 수 있다. 이 물을 초등학교생들이 화단에 물을 주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빗물체험'이라고 한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양케이트를 실시했는데 '생각보다 빗물이 깨끗하고 작은 빗물을 모으니 많다, 그리고 그

냥 버렸던 빗물이 아깝다' 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빗물을 모은 탱크를 비워가는 것이 재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에 대해 선생님들이 왜 쓰는 것이 재미있는지 질문을 했다. 답변은 탱크에 가득한 물을 보면서 즐겁게 물을 쓰는 것이 재미있다 "선생님 탱크 비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했다. 물의 양은 한계가 있으므로 생각하면서 물을 쓰는 방법을 교육 하는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까지 내린 빗물은 어디로 갔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체험해보고 알아보도록 해서 물의 순환에 대해 이해하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좀 더 물의 순환과 사용에 대해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1) 물의 순환체험을 보급한 기간과 앞으로의 계획은?

→ 지금까지 약 2년간 일했다. 작년에는 6개 초등학교에 보급을 했으나 올해는 19개교로 확대 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후쿠오카 교육위원장과 이야기해서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시청과도 물탱크 지원 부분을 요구해 약 반정도는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작년에 70개 정도 설치했으나 올해는 100개를 설치했으며, 기업에서 많이 후원하기 때문에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탱크의 이름이 있는가?

→ 탱크아메리라는 이름이 있으며 120l 와 200l 2종류가 있고, 가격은 200l 에 15,000¥이다.

3) 초등학교에 설치된 탱크의 비용부담은 초등학교에서 하는지?

→ NPO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다. 빗물을 모으는 활동으로 알게 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4) 120l 는 얼마인가?

→ 9,000¥이다.

5) 교정에 물이 차있는 것은 일부분인가? 이럴 경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운동장에 물이 모이게 구석에다가 댐을 쌓는다. 깊이는 15~20cm정도여서 아이들이 넘어져도 문제는 없다.

6) 산성화 등으로 인하여 빗물을 기피하는 경향이 없는지?

→ 후쿠오카에도 산성비는 내리지만 내리는 비의 산성도를 재어서 보여 주면 식물이 시들어 버릴 정도는 아니므로 별 무리가 없다. 중요한 것은 물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것으로 산성이라는 것은 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공기가 오염된 것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 한다.

7) 탱크의 기능이 있는지?

→ 기본적으로 아무거나 괜찮다. 모으기만 하면 다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판매되는 것의 특징으로는 햇빛을 받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다. 햇빛을 받게 되면 미생물이 자라기 때문에 햇빛을 가리며, 빗물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한다.

8) 비가 한꺼번에 올 경우 탱크의 기능은?

→ 탱크가 가득 찰 경우 나머지 물은 땅으로 흡수 할 수 있도록 한다. 탱크의 모양은 맥주 통을 생각하면 된다. 단, 나머지 물을 땅으로 스며들게 하는 통로가 있다.

9) 초등학교에 설치 한 후 효과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 조사한 적은 없다. 단 강사 집에 설치 한 것은 확인이 되었다.

10) 집을 지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화 또는 법제화하는 운동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급운동만 하고 있는가?

→ 법제화는 좋은 생각이지만 아직은 물탱크를 더 보급하고 물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미 만들어진 집에 설치하기란 곤란하다.

11) 비가 많이 내릴 경우 공원 같은데 탱크를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은 어떤가?

→ 행정기관에서 미관상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 설득 중이다.

12) 단체명을 들었을 때 혼동이 없는지?

→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이다. '너는 환경운동을 하면서 왜 댐을 보호하나?' 라는 질문 등을 받으면 빗물을 모으는 탱크를 만들어 댐의 효과를 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물의 절약으로 인해 댐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에코스타일리스트 - 헨 천을 찢어 짚신 만들기

일시 : 9월 9일(금) - 10일(토) 저녁 7시 30분

장소 : 리센트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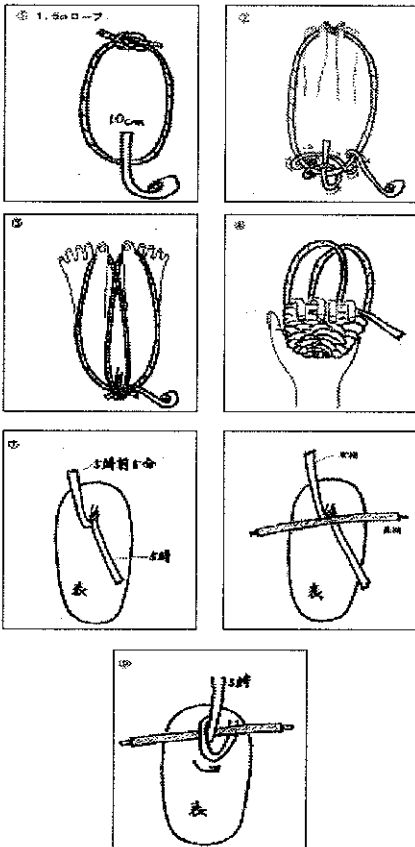
설명자 : 우에노상 (에코넷 후쿠오카 자원활동가)

준비물 : - 로프 굵기 8mm 길이 1.5mx2장, 굵기 8mm
길이 5cmx2장

- 천으로 된 끈 : 무명 유카다(일본 개량 전통복),
티셔츠, 이불카바 등 무명으로 4~5cm 폭으로
재단 또는 찢은 것,

- 하나오 : 길이 45cm x 폭 5cm x2장

- 마에오 : 길이 45cm x 폭 5cm x2장



1. 1.5m 로프천을 10cm 남기고 로프 위에 둔다.
2. 이때 두 개의 로프의 가운데 천이 중심이 된다. 긴 쪽을 찢는 천으로 왕복해서 천을 둔다.
3. 매듭을 잡고 로프를 비틀면서 짜기 시작한 로프 밑에 겹치게 한다. 매듭을 조금 바깥쪽에 두게 되면 짜기가 쉽다. 짜기 시작한 천의 중심은 로프 고리안에 넣는다.
4. 한단을 잘 때마다 모양을 만들면서 그림과 같이 로프 사이에 손가락으로 푹푹 쪼인다. 씨실을 너무 잡아당기면 폭이 좁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5. 네 번 접고 난 뒤 마에오를 바깥쪽에서 뒤쪽으로 꿰서 고리안의 로프와 천을 꿰서 맨다.
6. 2개의 마에오를 각각 들고, 튼 마에오를 3번 접친다.
7. 오른쪽을 5시 왼쪽을 5시 5분전의 형태로 둔다.
8. 마에오의 중심에 하나오를 둔다.
9. 5시 위에 5분전을 왼쪽 하나오 위로 매고 오른쪽 하나오 밑으로 빼서 5분전 고리 부분에 꿰서 맨다. 2개의 마에오를 비틀어 3번 겹쳐서 처음에 꿰 마에오의 1단 위에서 뒤쪽으로 빼서 묶는다.

에코스타일리스트 - EM 비누 만들기

일시 : 9월 10일(토) 오전 10시

장소 : 후쿠오카 리사이클센터

설명자 : 에코넷 후쿠오카

준비물 : 우유팩 1리터, EM발효액 200cc, 수산화나트륨
(가성 소다) 90g, 폐유 600cc(폐유는 AV-
CHECK로 산화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교
반봉, 장갑, 마스크, 앞치마

1. 우유팩에 EM발효액 200cc를 넣는다.
2. 1번에 수산화나트륨(가성 소다)를 넣고 수산화나트륨이 거의 녹을 때까지 약 5분 정도 잘 섞는다. 그러면 냄새와 함께 열이 발생한다. (우유팩이 뜨끈해진다)
3. 수산화나트륨이 녹으면 폐유 600cc를 부어서 잘 섞는다. 30분에서 1시간정도 뽀뽀할 때까지 잘 섞으면 된다. 4~5일정도 지나서 우유팩을 만져보아 단단해 졌으면 우유팩을 찢어서 고체를 꺼내어 낸다. 그리고 좋은 크기로 잘라서 건조 시킨다.
4. 건조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비누 밑에 젓가락 등을 두고 말리면 좋다. 비누 사용은 최소한 2개월 후부터 가능하며, 비누를 자를 때는 낚시줄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자를 수 있다.
5. 시민들이 직접 폐식용유를 가져올 경우 산폐측정기로 6이하가 나오면 더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며, 6이상의 경우를 주로 사용한다. 산폐도가 높을수록 비누가 더 잘 만들어진다.

EM발효액을 만드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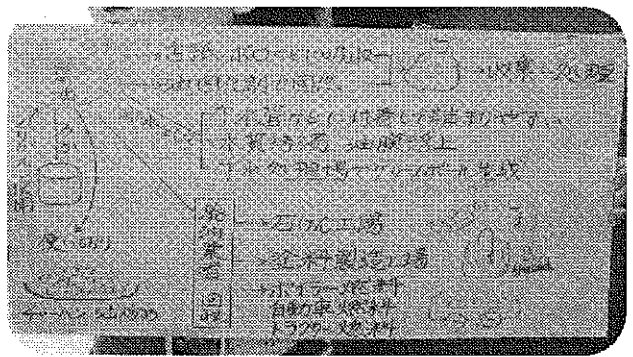
준비물 : 팻트보틀 - 2리터, EM1호 - 50ml

쌀뜨물 - 쌀을 씻기 시작한 첫번째 얇은 쌀뜨물 2리터

1. 팻트보틀에 EM1호 50ml를 넣는다. 쌀을 씻기 시작할 때의 얇은 쌀뜨물을 쌀을 씻을 때 마다 넣는다.
2. 쌀뜨물이 팻트보틀에 가득차면 한 달 정도 묵혀둔다. 그리고 뚜껑은 꼭 잠근다. 발효가 시작 되면 반드시 가스를 빼 준다. 발효가 제대로 된 것은 새콤달콤한 냄새가 난다.
3. 폐유를 담은 용기는 쌀겨를 이용해서 기름을 닦은 후 세척하면 좋다. 사용한 쌀겨는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폐축정기〉



〈폐식용유를 모으는 과정을 담고 있다〉

에코스타일리스트 - 종이 만들기

일시 : 9월 10일(토) 오전 11시 15분

장소 : 후쿠오카 리사이클센터

설명자 : 에코넷 후쿠오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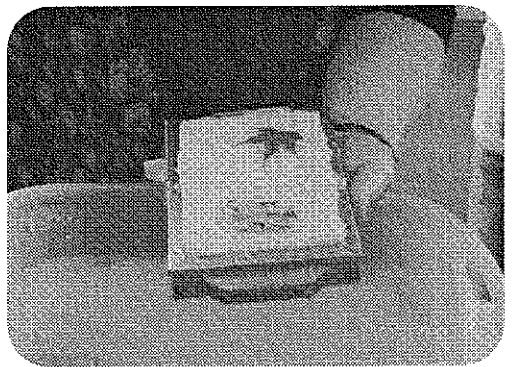
준비물 : 믹서기(종이를 물과 섞는데 사용), 종이를, 우유팩, 폐신문지, 스폰지, 다리미, 수건, 면(종이틀에 맞을 정도면 됨), 믹스된 종지와 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 (사각으로 된 것이 좋다)

1. 우유팩에서 먼저 코팅된 비닐을 제거한다. 앞, 뒷면 다 제거해야 한다. 우유팩을 물에 넣고 30분 정도 잘 끓이면 비닐이 깨끗하게 벗겨진다.

2. 비닐이 제거된 우유팩을 찢어서 물이 든 믹서기에 넣고 갈아준다. 펄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한다(다른 것은 필요 없고 물만 넣으면 된다).

3. 갈아준 종이를 물과 함께 큰 그릇에 넣고 비누들을 이용하여 종이를 떠준다. 3번 정도 떠주면 틀 위에 종이가루가 알맞게 쌓인다. 이 때 장식물 등을 얹을 수 있다 (99%의 펄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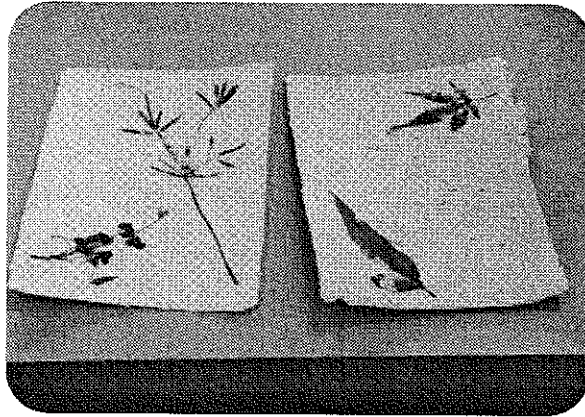
단, 종이에 나뭇잎이나 꽃잎 등의 무늬를 넣을 때는 3번 정도 거른 후 나뭇잎과 꽃잎을 올린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4. 떠준 종이에 형질을 덮고 수세미로 살짝 눌러 물기를 어느 정도 빼준 뒤에 수건으로 감싸 꼭꼭 눌러 물기를 제거한다.

-
5. 수건과 형질을 벗겨내어 상온에 잘 말리면 종이가 완성된다.
빨리 하려면 수건만 벗겨내어 다리미로 말릴 수 있다

질문



- 1) 종이 만들기의 효과는 무엇인가?
→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 우유팩이나 폐신문지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종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2) 어떤 종어도 괜찮은가?
→ 코팅 비닐을 제거한 종이면 다 괜찮다.
- 3) 인쇄되어 있는 종어도 괜찮은가?
→ 종이를 잘게 찢 후에는 가능하다.

에코쿠킹 - 비빔밥과 김치전

일시 : 9월 10일(토) 1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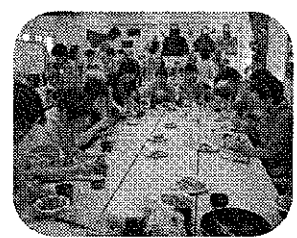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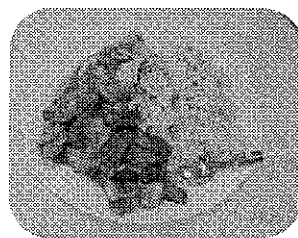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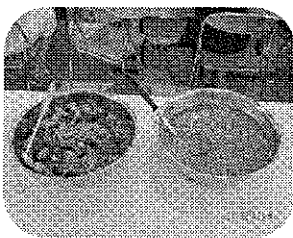
장소 : 후쿠오카 리사이클센터 식당

설명자 : 김복남, 부산YMCA 녹색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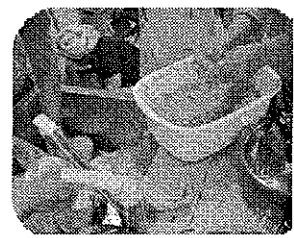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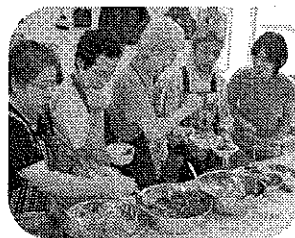
준비물 : 김치, 밀가루, 콩나물, 호박, 고사리, 각종양념,
고추장

생활폐기물의 구성 성분은 소득수준이나 생활양식 등에 따라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이 10% 정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일본(도쿄)과 같은 수준인 27%에 달해 심각한 양상이다.

계획적인 식단에 따라 적당량의 식재료를 구입하고 적정량의 음식물을 조리하는 건전한 식생활 문화인 '에코 쿠킹'을 실천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한국식단의 경우 밥을 중심으로 하여 반찬의 가짓수가 많다는 점에서 적당량의 음식물을 조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남은 식재료나 음식물을 이용하여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에코쿠킹이 비빔밥이다.



〈에코넷 후쿠오카가 준비한 카레〉



〈녹색가게가 준비한 비빔밥〉

〈쌀겨를 이용한 설겅이〉

에코스타일리스트 - 나무 장난감 만들기

일시 : 9월 10일 오후 13시 30분

장소 : 에코넷 후쿠오카 리사이클센터

설명자 : 에코넷 후쿠오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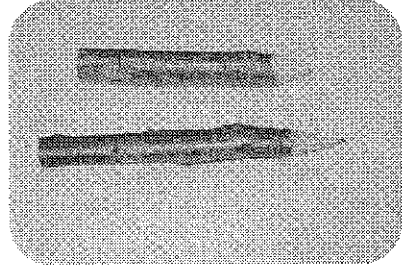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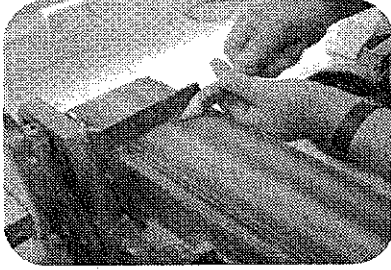
에코넷 후쿠오카 STAFF는 4명이다. 특히 기타야마씨는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불린다. 하는 일은 버리는 나뭇가지로 연필 장난감 등을 만든다.

수리공방이 하는 일 중에서 장애우들에게 나무 다듬는 일 등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비장애우와 장애우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연필만들기 (준비물 : 벚꽃나무와 몽땅연필)

1. 나무에 연필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구멍(약 7mm정도)을 드릴로 만든다.
2. 1번에 몽땅연필을 넣어 빠지지 않도록 망치로 살살 두들겨 준다. 약 3cm정도 만 구멍에서 나오도록 한다.
3. 연필의 중심을 잘 보아가면서 나무의 뭉툭한 부분을 연필심이 보이도록 각도는 10~15도 정도 비스듬하게 한 후 사포로 잘 다듬어 준다. 기계를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며, 기계가 없을 경우에는 칼로 연필 깎듯이 깎아서 사용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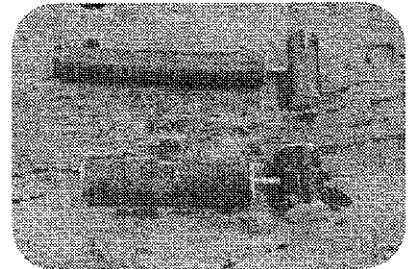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 몽땅연필을 볼펜 등에서 끼워 사용하는 문화가 없었다고 한다.



새소리나는 장난감만들기(준비물 : 머리없는 나사, 5cm·15cm 나뭇가지)

돌릴 때마다 새소리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숲체험프로그램에서 사용하면 좋다.

1. 5cm 가량의 나뭇가지와 15cm가량의 나뭇가지가 필요하다. 짧은 나뭇가지의 몸통 중심에 나사가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준다.
2. 긴 나뭇가지의 단면 중심에 구멍을 낸다(나사가 들어갈 정도).
3. 머리 없는 나사를 짧은 나뭇가지의 구멍에 넣고 초강력 접착제로 붙여준다.
4. 긴 나뭇가지 구멍에 짧은 나뭇가지의 나사 한 쪽을 돌려서 끝까지 끼워 넣어준 뒤, 다시 돌려 뺀다.
5. 나뭇가지 둘을 서로 돌려주면 새 소리가 난다.



에코스타일리스트 - 식물기계 만들기와 식물짜기

일시 : 9월 11일(일) 오전 10시

장소 : 에코넷 후쿠오카 리사이클센터

설명자 : 에코넷 후쿠오카

준비물 : 5mm, 2mm 나무판, 표본종이, 핸드드라이버, 찢어서 말아둔 헌 천(면, 마) 꾸러미, 말린 나뭇가지나 꽃 등, 밀어주는 나무판

1. 2cm 나무 위에 5mm폭의 나무를 올려 부쳐 나간다. 본드를 사용한다. 본드가 마른 후 나무를 떼어내고자 할 때는 물을 사용한다.
2. 판 중간에 올려 있는 5mm의 나무의 중간에 핸드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는다. 구멍을 낼 때는 높이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종이를 대어서 높이를 맞춘다. 구멍을 뚫을 경우 구멍 주변이 거칠어서 실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향에 불을 붙여서 구멍 주변을 정리한다. 향은 불붙은 곳이 1cm정도 되게 하는 것이 좋다. 향으로 해도 거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포로 밀어서 부드럽게 하며, 향으로 구멍 주변을 정리 할 때는 앞, 뒷면 모서리를 같이 해야 한다.
3. 구멍이 완성된 뒤 2cm의 판을 뒤에 붙인다. 만약 구멍이 제대로 뚫리지 않았을 때는 떼어서 다시 한다. 2cm의 직사각형 나무판 2개를 아래, 위로 하여 5mm폭의 나무판을 그 사이에 배열하여 접착해준다. 배열할 시에 간격유지를 위해 미리 그려둔 종이본을 아래에 대고 맞춰가면서 한다.
4. 실을 넣는다. 실길이는 원하는 작품길이에 50cm를 더하면 된다. 나무봉 1개에 실을 코바늘 매듭으로 고정시킨다. 고정시킨 실을 끌어다가 만들어둔 식물짜기 판에 끼운다. 처음실을 구멍에 통과시키고, 그 다음실은 배열된 5mm의 나무판과 다음 나무판 사이에 끼운다. 이 순서로 끝까지 실을 통과시킨다.

-
- ■ ■
5. 남은 나무봉 1개에 실을 4가닥 끌어와 두개씩 묶는다. 처음에는 왼쪽 가장자리의 ①②번실과 ③④를 하나로 묶는다. 다음은 오른쪽 가장자리의 ①②번실과 ③④를 하나로 묶는다. 이렇게 한 후에 왼쪽부터 묶어나가기 시작하면 헛갈리지 않는다.
 6. 코바늘 매듭을 묶은 나무봉을 한 쪽에 고정시키고 실을 4가닥씩 묶었던 나무봉을 허리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7. 공중에 매달려 있는 직물판을 위로 올리면 직물판을 통과시켰던 실과 실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 흰실몽치에서 흰 실 한가닥을 그 사이로 통과시킨 후 직물판을 아래로 내린 후 밑대로 실을 밀어주면 고정이 된다.
한 가닥씩 이어나갈 때마다 직물판은 위, 아래의 순서로 움직여 주어야 한다. 고정이 되지 않는다면 직물판의 순서가 틀린 것이다.
 8. 실을 다섯 가닥 정도 짠 후에 찢어놓은 흰 천으로 짜주기 시작한다.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고, 중간중간 천의 전체모양을 잡아준다. 중간에 실이나 천이 끊기는 경우 끊긴 지점에서부터 다시 천을 이어서 짜주면 된다.

질문

1) 실의 굵기에 따라 구멍이 틀리나?

→ 구멍에 맞춰서 실을 고른다. 더 촘촘한 직물을 짤 경우에는 판의 간격을 더 촘촘하게 하면 된다.

실의 길이는 자기 작품에 더하기 50cm를 하면 된다. 오늘 사용하는 실은 26번 실로 6합사이다.

현장탐방 - 와시로 갯벌 탐방

일시 : 9월 12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와시로 갯벌

안내자 : 와시로 갯벌지킴이 모임

와시로 갯벌은 일본의 야구돔 8개 만한 크기이다. 일본이 태풍에 대비하여 갯벌에 콘크리트 벽을 쳐서 갯벌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남은 갯벌 중 하나이다. 주변에 세워진 인공섬 때문에 철새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에는 갯벌에 해조가 많이 늘어나 시에서 예산을 들여 치우고 있으나 기하학적으로 늘어나 역부족인 상태이다.

갯벌의 흙은 속으로 들어갈수록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이것은 인공섬 때문에 해류의 방향이 틀려진 것과 흙 속으로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한다. 인근 주택에서 흘러보내는 수도 그 원인이다. 그래서 죽은 조개가 많았다.

주변으로 날아오는 새들은 마도요, 큰 뒷부리 도요, 쇠백로, 민물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민물가마우지, 왜가리, 개펄, 흰물떼새, 빨논병아리, 검은머리갈매기,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저어새, 청머리오리, 쇠재미갈매기, 검은머리흰죽지, 청둥오리 등이다.

〈와시로 갯벌지킴이 모임〉

갯벌을 살리기 위해 시와 협의 중에 있다. 와시로 갯벌 모임을 위해 18년 동안 갯벌을 관찰하고 청소하면서 수질조사도 벌이고 있다. 11월에는 갯벌축제도 열리는데 매년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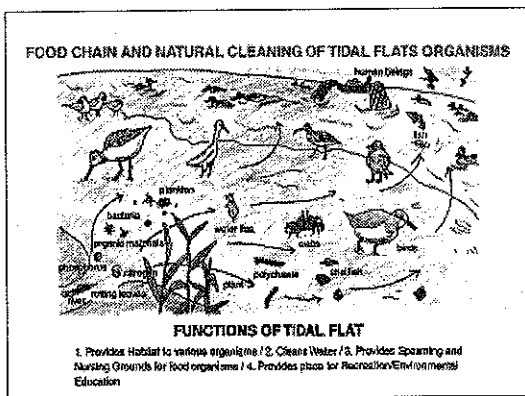
한국에 갔을 때 해안가를 백사장 중심으로 돌았는데 도중에 계속 갯벌이 나오는 것을 보고 부러웠다. 일본에는 작은 모래갯벌이 많다. 와시로도 큰 편에 속한다. 큐슈는 갯벌이 6개 정도로 가장 많다. 제방이 늘어나면서 자연해안선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에는 정말 풍부한 갯벌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일본은 갯벌이 없다. 그래서 갯벌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한국에서도 갯벌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질문

갯벌에 대한 시의 계획은?

수질개선의 노력은 하나 그 외에는 반응이 없다.



〈와시로해안의 다양한 생물들〉



갤러리

※ 에코넷 후쿠오카 회원들과 후쿠오카의 와시로 해안을 방문하였다.
 갤러리의 강사를 통해 해안의 갯벌 및 생태를 설명들었다.

현장탐방 - 동부매립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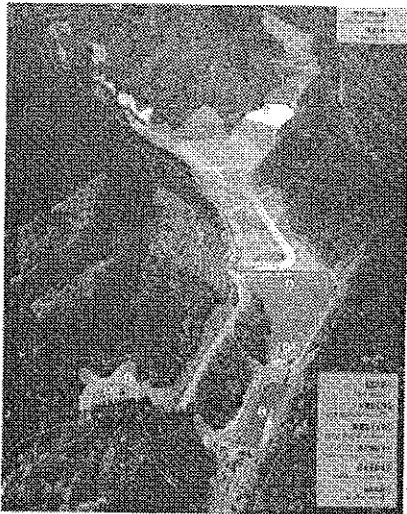
일시 : 9월 12일(월) 오후 3시

장소 : 동부매립장

안내자 : 미야무라씨

전체 면적은 644,000㎡이며, 총 면적의 1/4을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총 340t을 매립할 수 있으며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따로 모아서 관리하고 있다. 아래쪽에 보이는 저수지 옆에는 정화된 물을 보내는 곳이 있다. 정화조의 높이는 약 80m이고 최고로 높은 곳은 148m이다.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구분하는 방법은 설계당시에 쓰레기를 집한 더러운 물은 관을 타고 따로 분리하여 모이도록 설계를 하였다. 매립은 1988년부터 시작하였으면 30년간 매립하기로 하여 2018년까지 매립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60%, 190만톤의 매립이 진행되었다. 매립지는 약 70m씩 쌓여가고 있으며 콘크리트가 보이는 곳까지가 500m이고 여기서 600m를 더 메울 예정이다. 쓰레기차는 오후 4시까지 출입을 하고 있다.



〈동부매립장 부지 전경〉

후쿠오카시에서는 쓰레기를 태운 재가 120,000톤이 나오고 있다. 나온 재의 2/3가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쓰레기는 하루에 226톤이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그 중 70%인 180톤이 재로 묻어진다. 그 나머지는 타지 않는 산업폐기물이 들어오고 있다. 산업폐기물의 처리 방법은 그냥 쓰레기를 눌러서 매립한다. 당일 매립하지 못한 쓰레기는 벌레가 옮기기 때문에 흙으로 덮어둔다. 즉 타는 것으로 처리가 안되는 건 다 매립장으로 오고 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100년 뒤에 땅을 파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벌써 시작된 곳도 있다. 이런 아름다운 곳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매립되고 있는 것의 60%는 쓰레기를 태운 재이며, 40%는 산업폐기물이다.

현장탐방 - 녹색재활용센터

일시 : 9월 12일(월) 오후 4시

장소 : 녹색 재활용 센터

녹색재활용센터는 후쿠오카시 및 기타 여러 도시의 폐목재를 접수받고 있으며, 후쿠오카시 폐목재는 시에서 돈을 내고 이곳으로 수송해 주고 있다.

폐목재 중 사용 가능한 것은 후쿠오카 리사이클센터에서 가지고 가서 간단한 수리공정을 거쳐 재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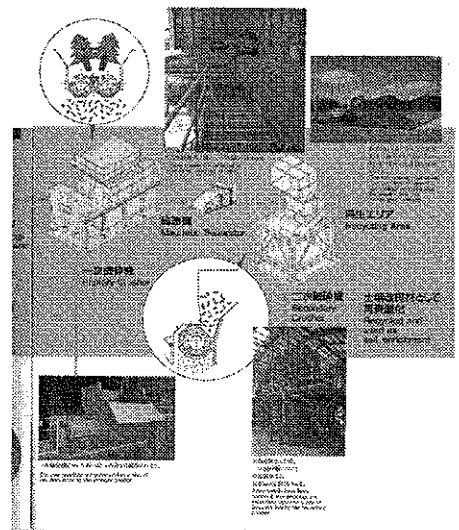
또한 가로수 등에서 자른 나뭇가지 등은 잘게 잘라서 산으로 보내거나 퇴비로 사용하고 있다. 나무의 색이 하얀 것은 최근 것이며 까맣게 변한 것은 오래 된 것이다.

만드는 방법은 기계를 이용해서 나뭇가지를 잘게 썬다. 이 가운데 이물질을 제거한 뒤 더 잘게 분쇄한다. 이렇게 잘게 분쇄한 것을 한달에 한번 증기로 잘 썩여준다. 너무 마른 경우에는 물을 뿌려서 잘 썩게 해준다. 이런 방법을 약 10개월에서 1년간 반복하면 까맣게 퇴비로 변한다. 이것은 비료대신으로 사용한다. 주로 공원에 나무를 심을 때 사용되며 후쿠오카시의 인공섬을 만들 때도 사용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는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계약자가 사용할 때 가지고 간다. 때때로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해주시기도 한다.

폐목재를 퇴비로 사용하는 것은 9년 전 부터 시작했으며 전국적으로 수십 개의 센터가 있다. 후쿠오카시에는 현재 여기 1곳뿐이다. 후쿠오카시의 서부에서 수집을 하여 동부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구조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는 질소만 많이 함유되어있기 때문에 비료와 흙을 섞어서 사용해야 한다.



<녹색재활용센터 하는 일과 전경>

도시녹화박람회 (<http://www.fukuoka-ryokukafair.jp/kr/index.html>)

일시 : 9월 12일(월) 오전 11시 40분
장소 : 아일랜드시티 중앙공원과 주변 지역

후쿠오카 페어는 본시의 중심부에서 북동쪽으로 약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하카타만의 매립지인 아일랜드시티(약400ha)내의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개최하고 있다.

후쿠오카 페어는 개최테마하에 73일간 펼쳐지는 [꽃] 과 [나무] 의 성대한 제전으로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각지로부터 꽃과 나무가 출품되며 수많은 시민들이 참가하는 매력 넘치는 페어를 지향합니다.

○ 행사내용

- 조경가(landscape architect)에 의한 심포지엄과 세미나
- 가드닝(gardening) 콘테스트

○ 전시내용

- 국제 교류 정원(자매·우호도시 정원)의 전시
- 세계, 아시아 각국의 꽃, 나무의 전시
- 시민, 어린이들이 만드는 화단전시
- 꽃을 제재로 한 회화, 사진, 미술공예품(옷, 나전세공 등)의 전시
- 옥상, 벽면 등의 녹화방법 소개

○ 기타

- 아시안 타운(아시아지역의 음식과 물건판매)
- 아시아의 꽃과 특산품의 판매

평가회

〈프로그램 측면〉

1) 김득주

전체적 일정은 잘 짜여진 것 같다. 배운 걸 얼마나 실용화 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조리 짜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것 같으며, 종이 만들기는 우유팩을 활용하여 종이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은 좋으나 우유팩 논란에 있어 재활용 측면은 아닌 것 같다. EM비누 만들기는 활용이 가능하면 확산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나무장난감만들기는 생태교실에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직물짜기는 작은 차관 받침으로는 괜찮으나 차라리 현 옷을 재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교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2) 장복자

만들기에 있어서는 거의 우리나라와 차이가 없었다. 에코넷 후쿠오카에서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 대화가 원활하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나누기에는 아쉬웠다. 조리, 직물기계 만들기는 좋았다.

3) 최은영

만들기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환경교육에 접목하면 좋을 것 같다.

4) 김은정

빗물활용은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활용하기에 좋은 것 같았다. 조리는 살내화 등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직물짜기는 우리나라 전통의 베틀짜기가 있는데 일본에 와서 감탄을 한다는 점이 아쉬웠다. 나무인형 만들기도 우리나라 환경운동단체에서 진행했었던 내용이었다. EM비누만들기는 위험해서 청소년들에게 보급하기는 힘들 것 같다. 종이만들기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다.

5) 전경희

프로그램은 촘촘히 잘 짜여진 것 같다. 여러 가지 만들기의 맛을 봤지만 활용 면에서는 아쉬웠다. EM비누만들기의 경우에는 EM발효액 만드는 것이 중심인데 그것을 해보지 못한 것 등은 아쉽다.

6) 김선미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조리는 만드는 수고에 비해 투박해 보이고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 EM비누 만들기는 정말 배우고 싶었던 부분이지만 발효액 만드는 걸 해보지 않아서 아쉽다. 직물기계는 현실적이 않는 것 같고 갯벌탐방은 한국이 훨씬 낫다. 소각장 탐방은 환경운동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7) 서경석

작년은 여기서 뭔가 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다. 슬쩍 보고 가서 장비구니 만들기운동을 확산했다. 사진과 샘플, 그리고 사온 물건을 가지고 확산한 것이었다. 이번 탐방은 스캐줄을 촘촘히 짜면서 뭔가를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구성을 하였다.

배운 것을 새로운 것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용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찾자. 조리는 정서상 맞지 않을 것 같으나 직물기계는 실을 이용해서 짜면 좋을 것 같다. 이것은 응용부분이 많을 것 같다.

상호교류 프로그램은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야 했으나 없어서 좀 아쉽다.

8) 김정지현

활동가가 자주 만나야 한다. 환경활동가의 만남, 빗물 활용은 생활 속에서 뭔가 한다는 것이 좋아 보였다. 조리 만들기는 크게 쓸모는 없을 것 같다. EM비누만들기는 공장으로 가서 대규모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우리는 '데니서'의 운동을 접목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다.

종이만들기는 교육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지만 최상의 종이를 만들 수 있는 우유팩을 활용하는 것도 아깝고 물도 많이 들어서 좋지 않은 듯하다. 나무장난감은 생태교육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직물기계는 짜투리천 활용 부분이 좋았다. 갯벌탐방은 일본의 갯벌이 좋지 않아서 그냥 그랬지만 갤러리를 통해서 갯벌을 알리는 활동 등은 인상적이었다. 나무를 이용해서 퇴비를 만드는 부분은 아주 좋은 것 같다.

9) 문영미

함께 한다는 것이 힘이 되었다. 하나의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변형된 작품으로 응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10) 이희숙

조리만들기는 마무리가 힘들었다. EM비누만들기는 시금치 삶은 물로도 할 수 있으나 가성소다가 눈을 많이 나빠지게 한다. 종이 만들기는 학생들 교육 사업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직물 만들기는 첫 시작부터 배웠으면 좋았을 것 같다.

갯벌체험은 한국에서 실용성은 없다. 쓰레기 매립장은 한국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1) 박혜연

만들기 체험은 한국에서 실현 가능성이 어려울 것 같다. 조리는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만들기 프로그램 중 식물짜기는 좋았다. 깃벌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깃벌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좋았다. 우리 일정 외에 만들어 본 전단지 활용 박스 만들기는 좋았다. 각 녹색가게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스럽다. 전국 녹색가게협의회 차원에서 되살림 팀을 조직해 보급하자.

12) 김복남

일정이 빠빠한 것이 좋았다. 긴장감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다. 만들기 중 어려운 것은 72시간 안에 반복하여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나무장난감 만들기 중 몽땅연필 활용하기는 교육면에서 좋다. 식물짜기도 좋았는데 복습을 잘 했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13) 윤미숙

프로그램 중 무엇보다도 쌀겨를 이용해서 기름을 닦는 아이디어가 좋았다.

14) 박은영

만들기들은 처음해서 재미있었다. EMM비누를 얼굴에 쓰는 것은 처음 알았다. 종이만들기 및 조리만들기 식물짜기 등은 녹색가게 필요에 따라 만들면 좋겠다. 각 가게별로 응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

15) 임은경

프로그램을 통해 에코넷 후쿠오카의 꼼꼼함과 세밀함을 배웠다. 에코스타일 전문가 양성을 내년에 할 경우 한 가지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무엇인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만들어보아야 할 것 같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조리만들기 처럼 우리나라의 전통과 연결하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고민이 생겼다.

〈생활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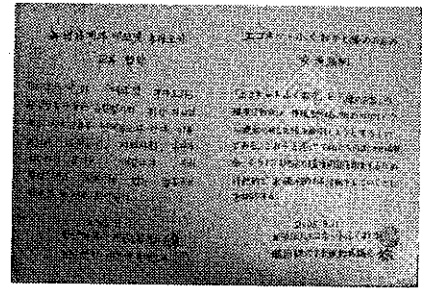
- 환경박람회에서도 도중에 일행을 잃어버렸는데 집행부와 전화연결이 안되었고 바로 일행을 잃어버렸는지 확인이 안된점 등은 안전체계가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였다. 사고 등에 대비하여 전화번호 등을 확실히 알아두자.
- 숙박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 프로그램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분야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웠을 것 같아 이쉽다.
-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준비해 준 일본 사람들의 성의에 감사한다.

자매결연 - 에코넷 후쿠오카와 전국녹색가게협의회

일시 : 9월 11일(일) 오후4시 ~ 7시
 장소 : 에코넷 후쿠오카 리사이클센터 공방부
 진행 : 에코넷 후쿠오카

▶ 내용

- 16:00 녹색가게 & 에코넷 대표 및 참가자 소개하는 시간
- 16:50 약정서 체결
- 17:30 어울림마당 - 한·일 장기자랑
- 19:00 만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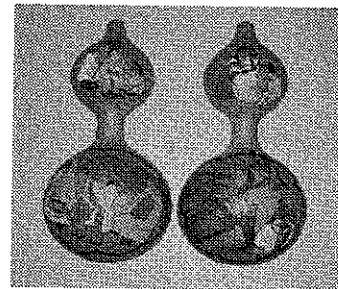
〈교류협약서〉

- ▷ 일본: 방글라데시 전통춤, 에코넷 송에 맞춘 하와이 춤 (2인조, 단체)
- ▷ 한국: 오카리나 연주(박혜연) 및 합창, 오나라 /단소 연주 (김정지현) 및 합창, 아리랑 시낭송 "나는 바가지 꿰는 여자 또 바가지 끊히는 여자" (장복자)

〈“나는 바가지 꿰는 여자 또 바가지 끊히는 여자”〉

뽀드득.... 밤마다 박을 꺾는 소리는
 내 모든 시름. 상념을 고요에 파묻어
 또 하나의 나를 빚어준 인생의 반려자
 나는 바가지 꺾는 여자랍니다

큰 박 작은 박 주렁주렁 조롱박을
 잔뜩 실어와 깨끗이 손질하여
 먹지 대고 밑그림의 본을 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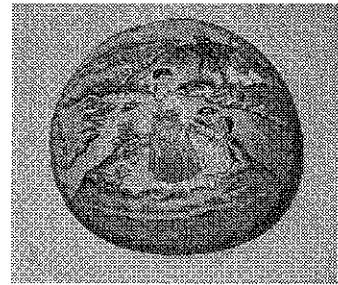


〈일본에 선물한 박공예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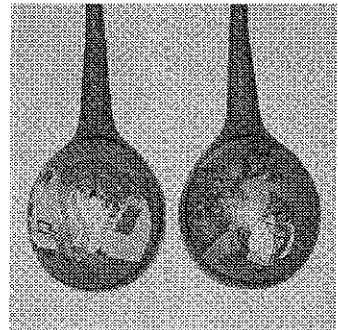
조각칼 잘 갈아. 먹선 따라 뾰드득...

이 한밤 지나면 청룡 백호가 포호하고
이틀 밤 지새우면
조랑말 탄 신랑이
혼인잔치 각시타령 . 싱글벙글 흥 타령

구경꾼 동네사람들이 어절씨구 뒤따르고
개울가 빨래터에 주절대는 아낙 까지
뾰드득...박 굵고 굵히면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 형체가 불쑥불쑥 묻어난다.
못 먹는 바가지만 사온다며 투덜대는 아이들도
산 딸기처럼 새 빨강게 익은 인두질에
묻어나는 박 향 짙은 내음은 좋아했다.



밤마다 뾰드득 박 굵는 소리는
엄마품의 자장가로 아이들을 잠 재워서
주욱 주욱 뻗어가는 박 즐기처럼
환하게 무럭무럭 열심히 자라 주었다.



뾰드득 빠각 빠각 먹 선 따라 굵어 파서
인두로 지저 태워 물감을 덧 칠하여
견우직녀 만나는 오작교 완성되면
어느새 새까만 창 밖은 먼동이 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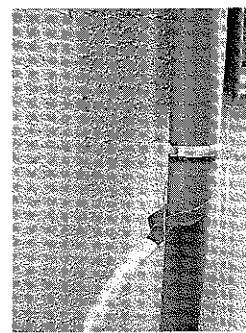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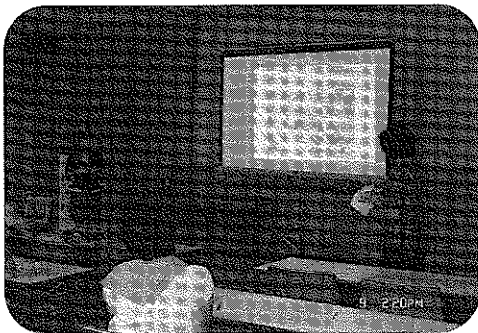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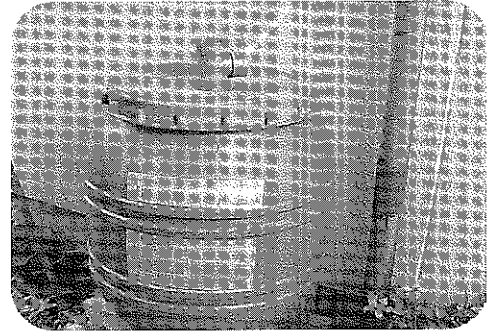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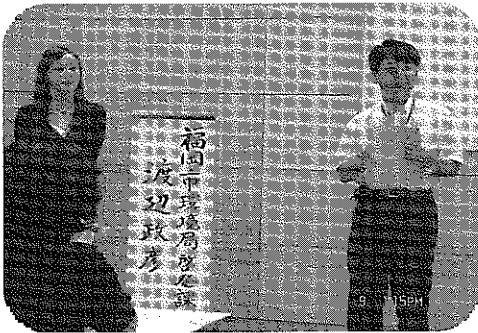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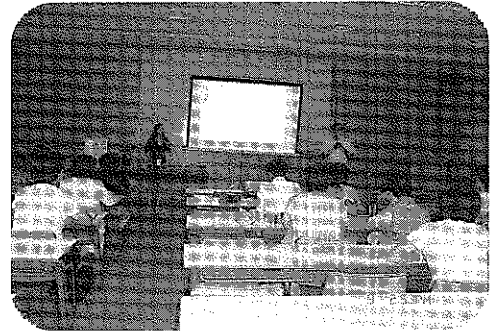
여보 당신 또 밤 새웠소”
연거푸 하품하는 나를 한심한 듯 보는
그이는 또 역정을 내신다.

아..언제부터 난 바가지 굵히는 여자....

사진으로 본 에코 스타일리스트 양성과정 9/9(금)

1. 후쿠오카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소개
(후쿠오카시청 환경과장, 와타나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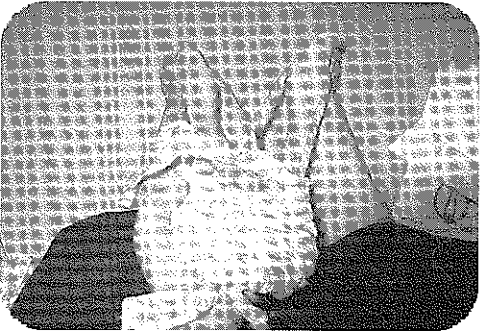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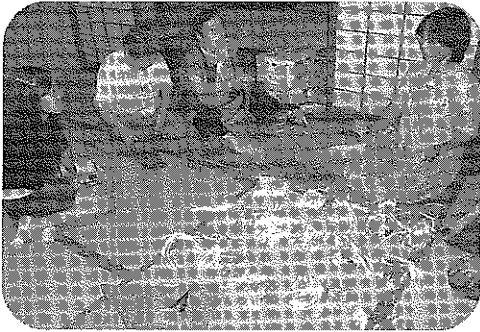
2. 환경활동가와의 모임 /
작은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야마시타 데루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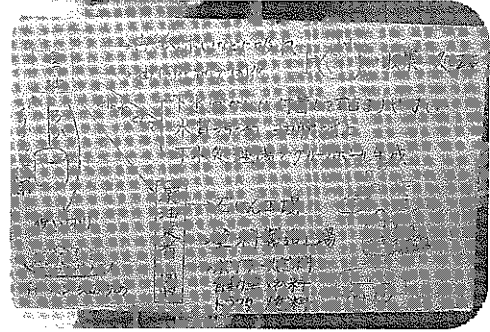
배수구에서
물탱크로
가는 우수관

9/10(토)

3. 체험 1 - '조리' 만들기 (9/9 ~ 9/10)



1. 체험 2 - EM 비누 만들기



2. 체험 3 - 종이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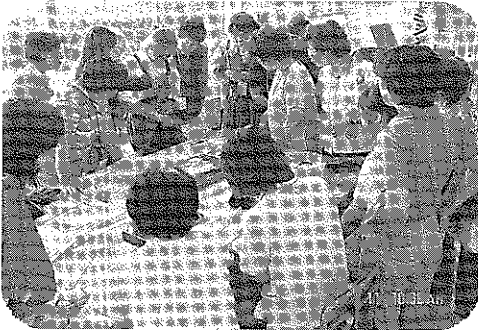


3. 체험 4 - 나무 장난감 만들기(연필,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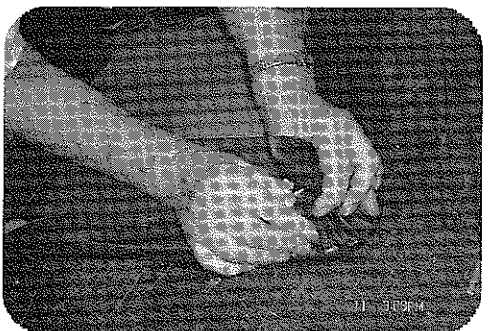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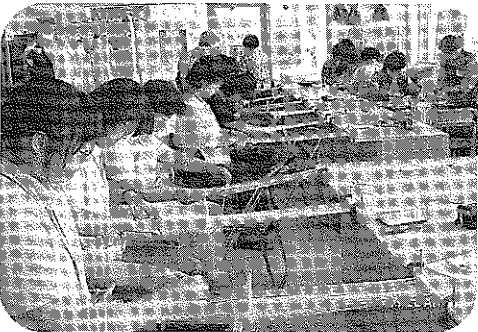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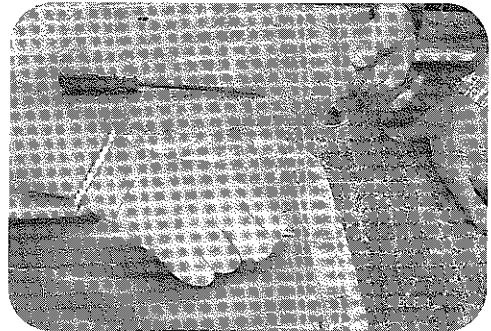


9/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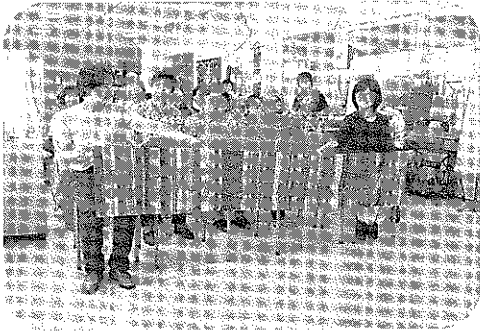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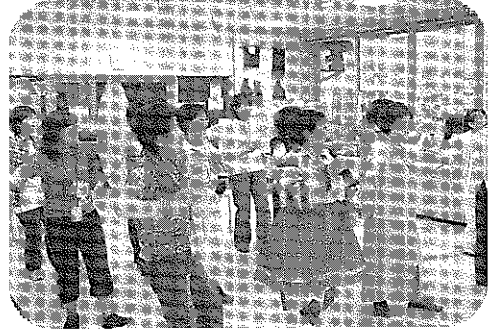
1. 체험 5 - 직물기 만들기,
직물기를 이용해 천 짜기



2. 일일 에코넷 체험 활동 - 수리공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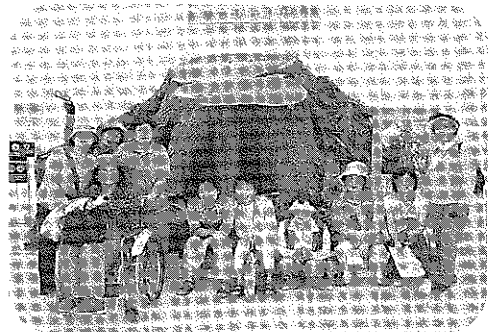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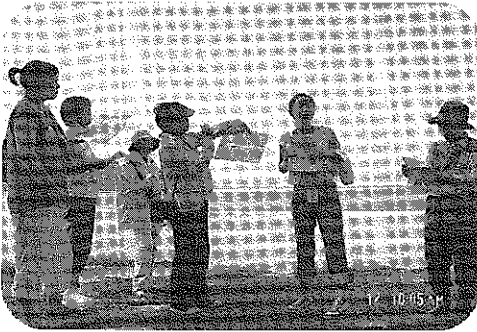
3. 에코넷과 녹색가게 교류 협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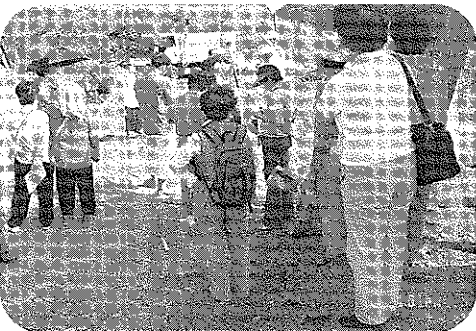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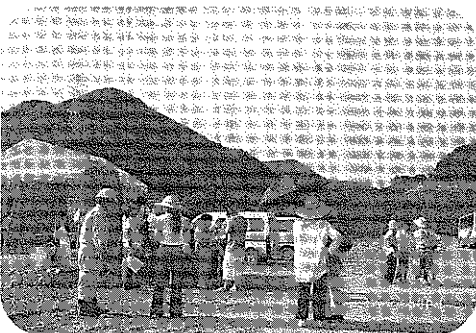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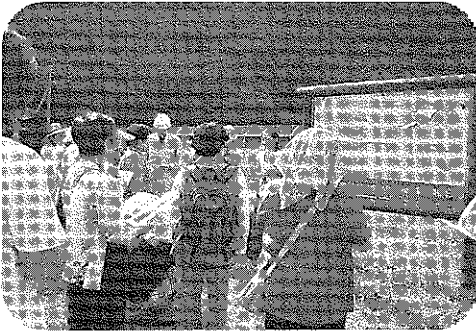
9/12(월)

1. 현장탐방 1 - 와시로 깃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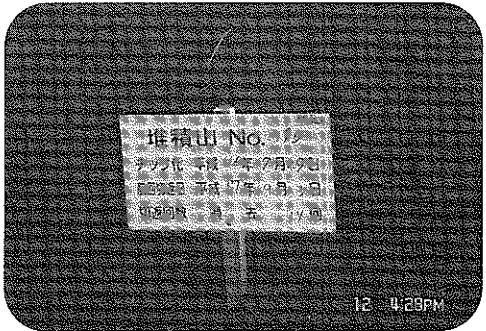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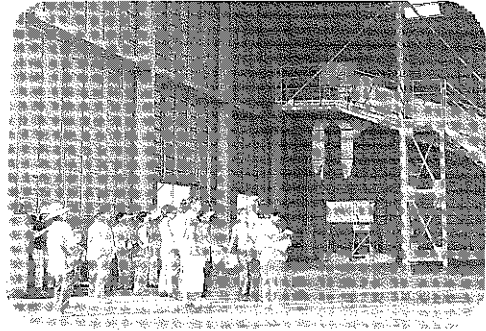
2. 현장탐방2 - 도시녹화박람회장



3. 현장 탐방 3 - 쓰레기 매립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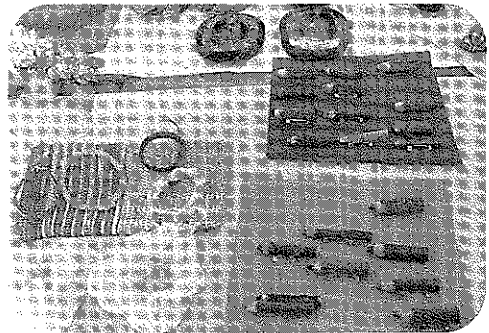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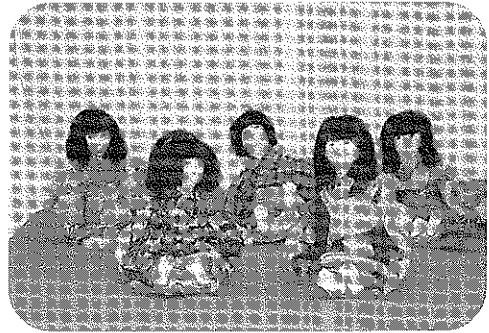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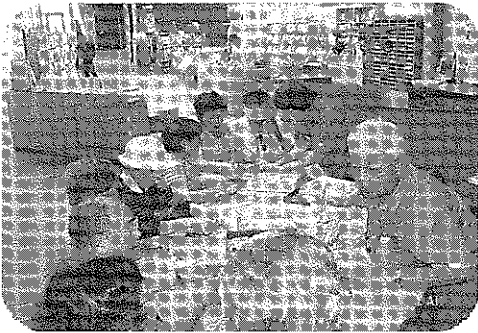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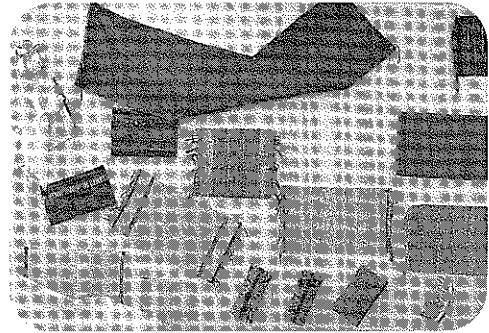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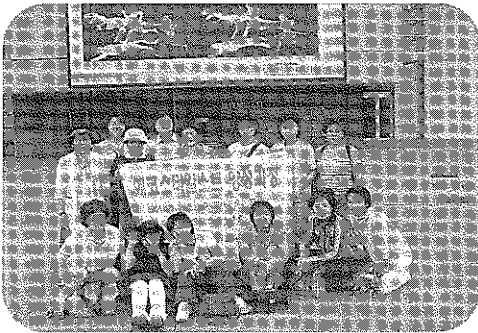
4. 현장 탐방 4 - 녹색재활용센터



9/13(화)

1. 현장 탐방 5 - 자연사 및 환경박물관 견학

2. 리사이클 플라자 내 작품들



에코스타일리스트 양성을 위한



일본연수 보고서

발행일 : 2005년 12월

발행처 :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편집인 : 임은경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45-1 서울여성플라자 3층
NGO센터, ☎ 02-815-5828, 전송) 02-826-1080

웹사이트 : <http://greenshop.or.kr>

▶ 이 보고서는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